

桃李寺 舍利塔의 調査

張 忠 植

1 前 言

2 調査經緯

3 舍利塔의 形態 및 造成年代

4 舍利具의 考察

5 結 語

一 前 言

新羅佛敎의 初傳者 阿度和 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桃李寺는 경북 善山郡 海平面 松谷洞에 위치한다. 이 절이 과연 옛 기록대로 阿度가 살던 곳(註①)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現存 桃李寺는 당시 山內庵子 격인 金堂庵(註②)이었다. 따라서 본래의 桃李寺는 언제 廢寺가 됐는지 확실치 않지만 현존 桃李寺 즉 金堂庵은 17세기 중엽 이전 부터 상당한 寺格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큰절인 도리사가 廢해지자 金堂庵이 도리사의 寺格을 대신했다고 생각된다(註③).

현재 도리사 경내에는 木造建物로서 本殿인 極樂殿을 위시하여 祖師殿, 七星閣 등의 法堂과 寮舍가 있으며 石造物로는 華嚴石塔, 世尊舍利塔 阿度和尙事蹟碑, 慈雲碑 등이 遺存돼 있다.

이들 石造物 가운데 世尊舍利塔은 조선시대 성행한 石鍾形 浮屠로서 뜻밖에도 底部 舍利孔에서 金色 찬란한 신라시대 金銅舍利具와 舍利가 출현해 世人을 놀라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지난해 6월 東國

大黃壽永博士에 의해 阿度和尙石像(註④)이 발견된 바 있다.

舍利具의 발견 직후 桃李寺에 관한 文獻을 조사한 결과 이舍利具는 본래 신라寺址로 추정되는 石積寺 古址에서 移安돼 조선시대 성행한 石鍾形 浮屠 속에 安藏됐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金銅舍利具 및 石塔의 조성연대를 해명해 왔다. 또 石塔과는 그 조성연대를 전혀 달리하는 舍利具는 그 형태가 六角이란 점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사리구와는 판이했다. 그리고 더욱 주목되는 것은 金銅舍利具 塔身面에는 보살상과 四天王의 線刻畫가 있다는 점이다.

二 調査經緯

舍利具 출현의 소식을 듣고 恩師 黃壽永博士와 필자가 현지에 도착한 때는 발견 후 약 二週만인 지난 五월 一일이었다. 사찰측의 도움으로 舍利具 一括遺物을 완전히 조사할 수 있었다.

舍利具가 발견된 소위 世尊舍利塔은 그동안 많은 수난을 겪은 후 오늘에 보존되었다고 생각된다. 一九六八年 檀國大 古蹟調査團에 의해 조사될 때만 하더라도 이 浮屠는 極樂殿 동북쪽 原位置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때인가 舍利具 盜取團에 의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가 사찰의 요청에 의해 다시 寺中 庭前으로 운반되었다. 그러니까 필자가 一九七二年 二一월 처음 도리사를 방문했을 때는 이 舍利浮屠가 극낙전 뒷뜰 땅 위에 그냥 놓여 있었고, 塔頂部에는 돌아가면서 「世尊舍利塔」이라는 五字의 銘文이 陰刻돼 있었으나 그 보존의 소홀함을 기이하게 생각한 바 있었다. 아마 이 때가 사찰 경내지로 운반된 직후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七六六년 六월 다시 도리사를 방문했을 때는 이 浮屠가 경내지 밖 원위치에 안치돼 있었지만 흔히 접할 수 있는 조선시대 石鍾形 浮屠라는 점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四월 二일 이 舍利塔의 移安工事 도중 우연한 기회에

塔身의 下端部를 조사하다가 下面部 舍利孔內에서 金銅舍利塔을 발견했다 한다. 탑신 하면의 舍利孔에는 方形蓋石이 끼어 있었는데 이를 제거하니 내부는 다시 단단한 石灰로 밀폐돼 있었다 한다. 이 석회로 인해 不法者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밀폐된 석회를 제거하니 다시 내부에는 六각형의 內舍利孔(註⑤)이 발견됐고 그 속에서 金銅舍利具가 출현됐다.

또 方形의 外部 蓋石을 고정하던 鐵製 보족 四개와 더불어 내부 六각 사리공에서는 舍利具를 고정시키던 白磁 破片들이 함께 발견됐다 한다. 이 백자 파편들은 금동사리탑봉안 년대를 추정하는데 매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 발견된 사리는 舍利瓶등이 없고 천과 문종이 등에 싸여서 삭아 뒤엉켜 있었다고 한다.

사리는 직경이 1cm, 높이가 1.3cm이며 위가 약간 뾰족한 원추형 두 명제로서 그 색채가 아주 선명했다.

이렇게 하여 발견된 舍利와 舍利具는 유리함 속에 임시 보관됐고 사찰측에 의해 즉시 保安이 강구됐다.

三 舍利塔의 形態 및 造成年代

먼저 舍利具가 발견된 石鍾浮屠의 형태를 간단히 살펴보고, 文獻에 의거하여 舍利塔의 조성사실 및 연대를 추정코자 한다.

이 浮屠는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조선시대의 石鍾形 부도로서 上部에 「世尊舍利塔」이란 銘文이 있다. 현재 담장 밖 원위치에는 이 부도를 놓았던 方形下層地臺石이 八枚石으로 남아있고, 그 상부에는 역시 花崗石으로써 四枚의 中臺石이 遺存돼 있다. 이들은 아무런 彫飾이 없이 원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 위에 있었던 上臺石과 塔身만 極樂殿 뒷쪽 새로 만든 戒壇形 石壇 위에 봉안됐다(註⑥). 上臺石의 四면 네귀퉁이에는 獅子의 머리부분을 조각했고 上臺 윗 면에는 한 가닥의 圓帶를 陽刻하여 塔身 받침을 삼아 그 위에 石鍾形의 塔身石을 놓았다. 탑신석 下部

에는 一〇葉의 單瓣仰蓮을 彫飾했는데 오른쪽 잎이 조금씩 겹쳐지고 있다. 塔身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고 上部의 伏蓮 역시 오른쪽이 겹치면서 길게 아래로 드리워져 있어 그 下端은 마치 장막을 드리운 듯하여 주목됐다. 寶珠는 위가 뾰족한 蓮峯形으로 下部에 單葉 七瓣의 仰蓮봉이 조각됐고, 그 윗 부분에는 다섯 곳에 圓座를 陰刻하여 그 內部에 각 一字씩 「世尊舍利塔」이라고 陰刻돼 있다.

이상이 石鍾浮屠의 형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上臺石四隅에 나타나는 조각(註⑦) 등은 주목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各部의 조각은 비교적 잘 整齊돼 조선시대 부도로서는 秀作이라 할 것이다. 塔身의 높이는 一〇二·五cm이며 上臺石의 크기는 一邊이 六一·五cm의 方形에 높이는 三〇cm이다.

다행히 桃李寺事蹟記에는 「石甕記」라는 기록이 있어 이 舍利塔과 발견된 舍利具에 대한 전모를 추정케 한다. 그 내용인즉, 「冷山の 石積寺古址에 佛舍利塔이 있었는데 동리에 사는 金界丈이라는 사람의 꿈에 현몽이 있어 이곳에서 크기가 울무(苡蕒)만한 舍利一粒을 얻었더니 색깔이 백옥같으며 放光했다. 桃李寺의 釋體眼大士가 널리 施緣을 구해 이 石甕塔을 만들어 舍利를 봉안했다고 한다(註⑧).

이 기록을 의지해 본다면 발견된 金銅舍利具와 舍利는 본래 石積寺의 古址 佛舍利塔에 봉안돼 있었다 할 것이다. 물론 이들 기록에서는 舍利具에 관한 언급이 없긴 하지만 이들 역시 함께 봉안된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이 石甕塔에 대하여는 檀國大 鄭永鎬教授에 의해 일찌기 추정된 바 있지만(註⑨) 이제 사리밧 사리구의 발견으로 石甕記의 기록이 더욱 확실해졌다. 즉 사리의 크기가 울무(苡蕒)만 하다는 기록 역시 발견된 사리의 크기가 직경 약 1cm로서 울무 크기와 꼭 들어맞으며 그 색채 역시 「白玉」같이 투명하고 또 石甕이란 말은 石鍾形 부도를 묘사해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다만 石積寺址의 存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추궁돼야겠지만 東國輿地勝覽을 관계문헌에도 寺名이 나타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뒤라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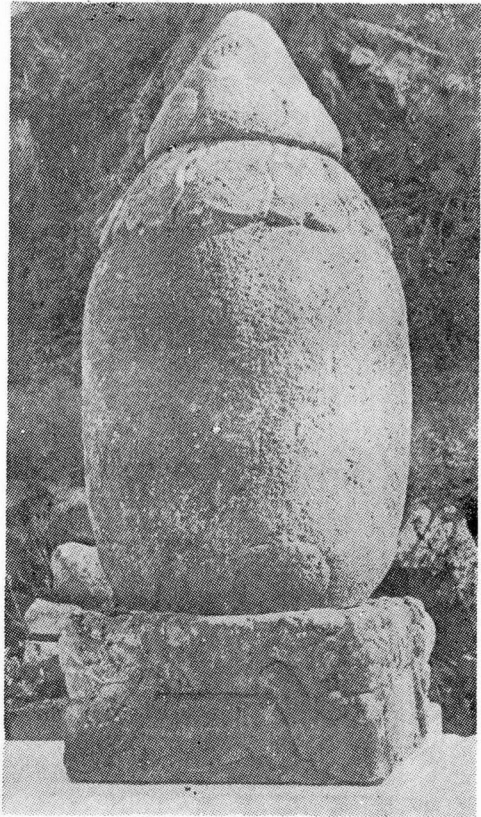


圖 1 石造浮屠

하기 어렵다. 그러나 海峰集의 기록을 의지한다면 桃李寺와 이웃하여 冷山에 존재했던 古刹로 추정된다.

끝으로 이 舍利塔의 造成年代에 관한 해명이 남아 있다. 사리탑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桃李寺事蹟記의 編述年代가 一九二九년으로서 근래의 作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石甕記를 참고 있는 「海峰集」의 저작년대와 함께 舍利孔에서 동시에 출현한 白磁破片에 대해 복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먼저 알려진 海峰集(註⑩)을 조사했더니 문제의 石甕記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海峰은 同名異人임이 밝혀지므로 하여 우리들은 다시 백자과편과 함께 석탑의 造形에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다.

白磁破片을 조사했더니 一六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註⑪). 그렇다면 이 사리탑의 조성은 그 上限이 一七세기에 머물게 됨을 본다. 따라서 이 白磁가 과편임을 고려할 때 그것은 발생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사용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石鍾浮屠 역시 그 형태가 신라나 고려시대에 발생하는 부도와는 판이하

고 또 상하기단 및 탑신의 조각수법이 조선시대 성행하는 일반형 부도와 전혀 동일함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舍利塔의 造成年代를 설정함에 있어서 발견된 백자과편의 上限年代 및 부도의 조각수법으로 봐 그 造成을 一七세기 중기에 두는 바이다.

四 舍利具의 考察

발견된 舍利具는 六角浮屠形으로서 屋蓋와 塔身, 그리고 座臺 등을 나타내고 있다. 도금이 찬란한 탑신 六면에는 二구의 보살상과 四天王의 線刻畫가 있어 주목됐다. 舍利具는 屋蓋와 塔身部가 서로 분리될 수 있게 造營됐고, 眼象을 가진 臺座部分은 塔身에 그냥 붙어 있으며 塔頂部까지의 총 높이는 一七cm, 底面의 직경은 九·八cm이다.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六角의 屋蓋는 각기 마루(隅棟)의 끝 부분에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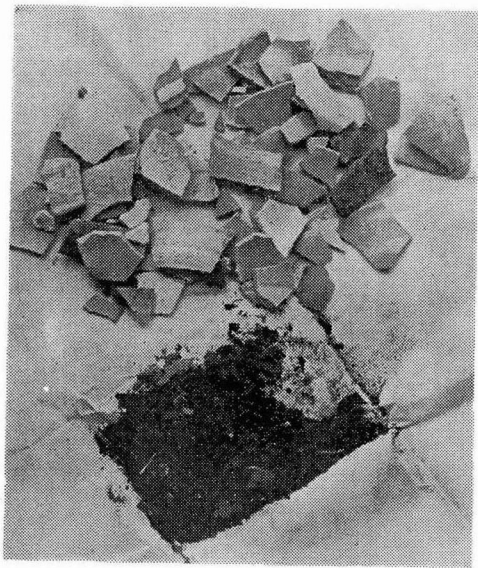


圖 2 石造浮屠舍利孔에서 발견된 백자과편 및 천과 중이

꽃을 나타내고 있다. 귀꽃은 三葉形으로서 밖쪽쪽으로 심한 反轉을 보여 시원하게 위로 뻗어 올라 있다. 이와 같은 귀꽃은 고려시대 성행한 八角石造浮屠의 옥개석 귀꽃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이 귀꽃은 하나가 결실된 현재 五개만 있으며 귀꽃에는 각각 원형의 고리가 있어 장엄을 나타낸 듯하다. 또 落水面의 중앙에도 동일한 원형의 고리가 있어 영락등을 달았던 장엄으로 보인다. 그리고 옥개의 중앙塔頂部에는 六葉의 單瓣伏蓮을 彫飾했다. 연화의 크기는 직경 二·三cm로서 끝부분에 약한 反轉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六葉의 花紋은 백제 武寧王陵玄室燈龕部의 壁面과 木製足座(註⑫)에 나타나는 六葉의 蓮華紋과도 花葉이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대를 올려잡을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花葉은 매우 古式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屋蓋底部에서 塔頂部까지의 높이는 약 三cm이며 底邊의 직경은 一〇·二cm이다. 塔頂部에는 相輪이 있는데 하나 지금은 결실됐다. 屋蓋의 斜面은 기와골 등의 표현은 없고 단순히 木造建物에서와 같이 六줄의 마루(隅棟)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塔身部 역시 六面으로서 二구의 보살과 四天王을 線刻했는데 그 手法으로 漆塗金 후에 刻한 것으로 보인다. 탑신면의 폭은 五·一cm, 높이는 一一·八cm이다.

먼저 二구의 보살상에서부터 살펴보면 향하여 좌편의 보살상은 머리에 寶冠을 썼고, 큰 귀에 눈은 아래로 지그시 감고 있다. 오른 손은 어깨 위까지 올라 三鈷의 金剛杵를 잡고 있으며 왼 손은 가슴 앞에 머물고 있다. 天衣는 자연스럽게 兩肩에서부터 아래로 드리워져 있으며 몸을 장엄한 영락은 天衣 양옆에서 垂下됐다. 膺下의 衣紋은 모두 點刻으로 나타났으며 두 발은 單瓣蓮華座 위에서 直立했으나 몸의 균형은 왼쪽으로 틀어 다소 굴곡을 나타내고 있다.

향하여 오른쪽의 보살 역시 寶冠을 쓴 일곱이 풍만한 편이며 목에는 三道가 있다. 두 손으로는 拂子(종채)를 바쳐들었으며 天衣는 자연스럽게 어깨에서부터 두 팔을 타고 내려왔다. 영락등 장엄이나 蓮華臺 등은

앞의 보살과 마찬가지로.

이들 중 金剛杵를 가진 보살은 帝釋天, 그리고 拂子를 가진 보살은 大梵天으로 추정해 두고자 한다(註⑬).

다음으로 四天王에 관한 문제이다. 대체로 四天王은 자기 그 기능에 따라 갖는 持物(註⑭)에 의해 명칭을 알 수 있으나 古代의 繪畫에서도 다소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註⑮).

이곳에 표현된 四天王 역시 그 持物을 살펴보면 寶塔, 칼, 三枝槍, 梵莢(梵語經典의 묶음 같으나 자세히 않다) 등을 보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寶塔을 持物로 하는 天王은 北方의 多聞天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칼을 持物로 하는 天王은 東方의 持國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三枝槍이나 梵莢 등을 가진 天王은 그 명칭을 아직 단정키 어렵고 다만 이들은 南方增長天이 아니면 西方廣目天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梵莢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天王은 또 자세히 보면 그 持物이 花葉形의 영봉으로 보이기도 하여 여기에 주의를 기울인다(註⑯).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이들 四天王의 線刻畫는 皇龍寺 木塔址心礎石에서 발견된 金銅塔誌(註⑰)의 線刻畫와도 비교 검토돼야 하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舍利具 臺座에 나타나는 眼象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眼象은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 에 나타나는 각종 眼象의 형태와 그 모습을 달리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윗부분의 尖頭는 매우 단조롭게 처리됐고 또 아랫쪽에는 중간에서 오목한(凹)부분을 나타내 흔히 않은 意態를 보이고 있다. 眼象의 크기는 높이 一·二cm, 폭 三·五cm로서 내부는 완전히 통해 있으며 古式을 나타내는 手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舍利具의 형태가 方形 또는 方壇의 八角基壇 위에 사리탑을 안치하는 형식임에 비해 이 사리구는 六角이란 점이 주목된다(註⑱). 따라서 이 사리구는 신라 말 九세기 禪宗의 발생과 함께 성행하는 八角圓堂形 浮屠와 對比해 고찰되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八角圓堂形 신라 浮屠의 先行樣式으로 밝혀진 多寶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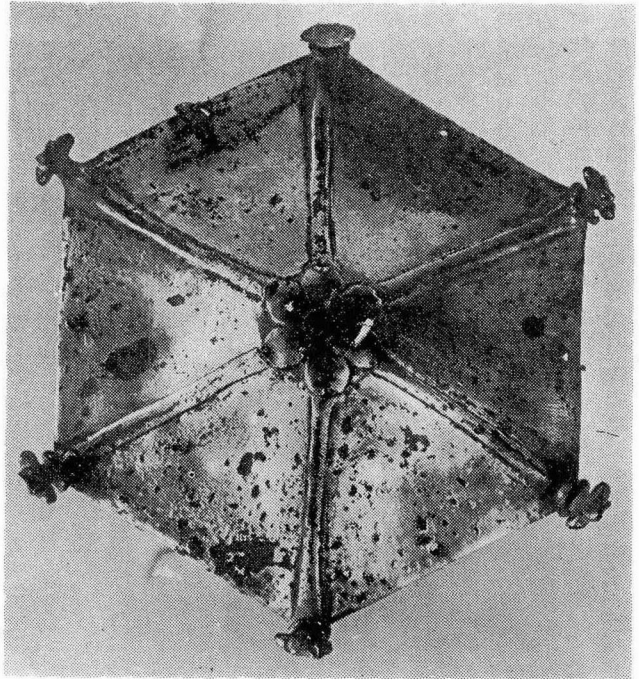


圖 3 桃李寺舍利塔發見金銅舍利具

基本이 八角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이 金銅舍利具가 六角浮屠로서 初有의 것이라 하는 점, 역시 高古한 遺品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古式을 나타내는 眼象의 手法이나 屋蓋頂部 연화문의 형태, 塔面 線刻畫의 技法, 그리고 塗金 등의 처리가 무거우면서 밝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舍利具는 통일신라 八세기의 작품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四 結 語

이 舍利具가 발견된 石鍾形 浮屠의 造成은 함께 出現한 白磁破片 및 浮屠의 조형양식을 주목할 때 十七세기 중엽의 작품이라 하겠으나 이 속에서 수습된 舍利具는 적어도 八세기를 내려올 수 없는 전형적인 신라



통일기의 秀作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統一期에 조성된 이 舍利具가 믿음의 정성으로 石積寺에 봉안되었다가 절이 廢寺된 朝鮮期에 와서 다시 石鍾 浮屠를 만들어 桃李寺에 再藏置되었다고 하겠다.

기왕에 발견된 신라시대 舍利具가 거의 다 四角塔形인데 비해 이 사리구는 최초로 출현한 六角浮屠形이라는데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이 六角浮屠形舍利具의 출현으로 인해 또 하나의 신라시대 浮屠樣式이나 木造建物の 양식고찰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 이곳에 나타난 四天王의 명칭 究明은 앞으로 더욱 論議되어야 할 石窟庵의 影像, 그리고 浮石寺 四天王壁畫의 양식과 명칭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古代造形을 살피는데 있어서는 글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 그것은 「世尊舍利塔」이란 자체가 오랜 전부터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무관심과 방관으로 인해 하마터면 나라의 귀중한 보배를 영영 잃을 뻔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같은 신라시대 金銅舍利具의 발견으로 인해 다시 한번 신라 불교의 初傳地 善山地域에 대한 새로운 주목과 아울러 佛教文化史의 해명이 병행돼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8세기의 아름다운 工藝品을 처음으로 간직했던 石積寺址의 해명이 앞으로의 과제임을 여기에 부언해 둔다. 끝으로 本調査를 위해 많은 도움말씀을 주신 恩師 黃壽永 館長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도리사 측에 감사한다.

〈第二〇回 全國歷史學大會 考古美術部 發表論文〉

- ① 東國輿地勝覽 卷二九 善山都護府 佛宇條 「桃李寺在冷山、新羅沙門阿道所居 東數十步許、有阿度石像、通望東南、曠野長江」이라든지 桃李寺事蹟記에는 「現南下約九町之所有桃李寺大伽藍古墟而但初伽藍金堂庵也」라 되어 있다.
- ② 현장에서 順治一五年(一六五八) 銘 瓦堂을 승득했으며 또 庭前의 華嚴石塔 등으로 바어쩌면 조선조기부터라도 金堂庵이 山內中心寺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④ 黃壽永 「阿度和尙石像의 發見」 東大新聞 第六四九號(一九七六년 六月 一五 日字) 참조.
- ⑤ 이 塔身은 사리 발견 직후 新造된 戒壇式 基壇에 다시 안치했으므로 舍利孔의 크기 등을 알 수 없었으나 차후 舍利奉安時에 자세히 조사하기로 하였다. 傳聞에 의하면 四방 약 一五cm, 길이 약 三〇cm로서 方形 속에 六角으로 된 二重 사리공으로 짐작된다.
- ⑥ 이 戒壇形 石壇은 通度寺、金山寺、龍淵寺 등에 遺存하는 佛舍利戒壇塔의 類形을 본받아 方形의 上下石壇 위에 浮屠를 안치했다.
- ⑦ 文化財大觀 寶物篇上 「金山寺石鍾 참조. 이 사자 조각은 金山寺石鍾 上臺石 四隅의 사자 조각상과 흡사함을 볼 수 있다.

⑧ 桃李寺事蹟記 冷山條 「海峰集桃李寺石甕記云、冷山之麓有石積寺古址佛舍利塔、現夢於洞居金界 丈、丈溥舍利一介、大如苜蓿、其色如白玉、現放光矣、桃李居釋體眼大士、廣 求施緣、造此石甕塔奉安。」

⑨ 檀國大博物館 古蹟調查報告書第二冊 「善山地區古蹟調查報告書」 P、一一五 참조.

⑩ 海峰集은 현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책은 光海君 때 文官인 海峰 洪命元(一五七三~一六三三)의 文集을 말한다. 三卷三冊으로 내용은 주로 詩文、祭文 등이다.

⑪ 발견된 백자 파편들은 빛깔 또는 회색등 三종으로 나누어지지만 이들은 대체로 一七세기 경에 출현되는 것이며 一六세기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⑫ 韓國美術全集二、「古墳美術」 P、八二、一一八 참조.

⑬ 이들 天部의 尊名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論議돼야겠지만 여기서는 경주 석굴암의 배안방식을 추종하여 둔다.

⑭ 四天王의 持物은 정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후대에 와서는 대체로 東方持國天(寶鏡)、北方多聞天(塔)、西方廣目天(琵琶)、南方增長天(龍)으로 알려져 있다.

⑮ 浮石寺祖師堂 四天王壁畫에는 그 持物이 칼과 창으로 일관되어 있어 분별키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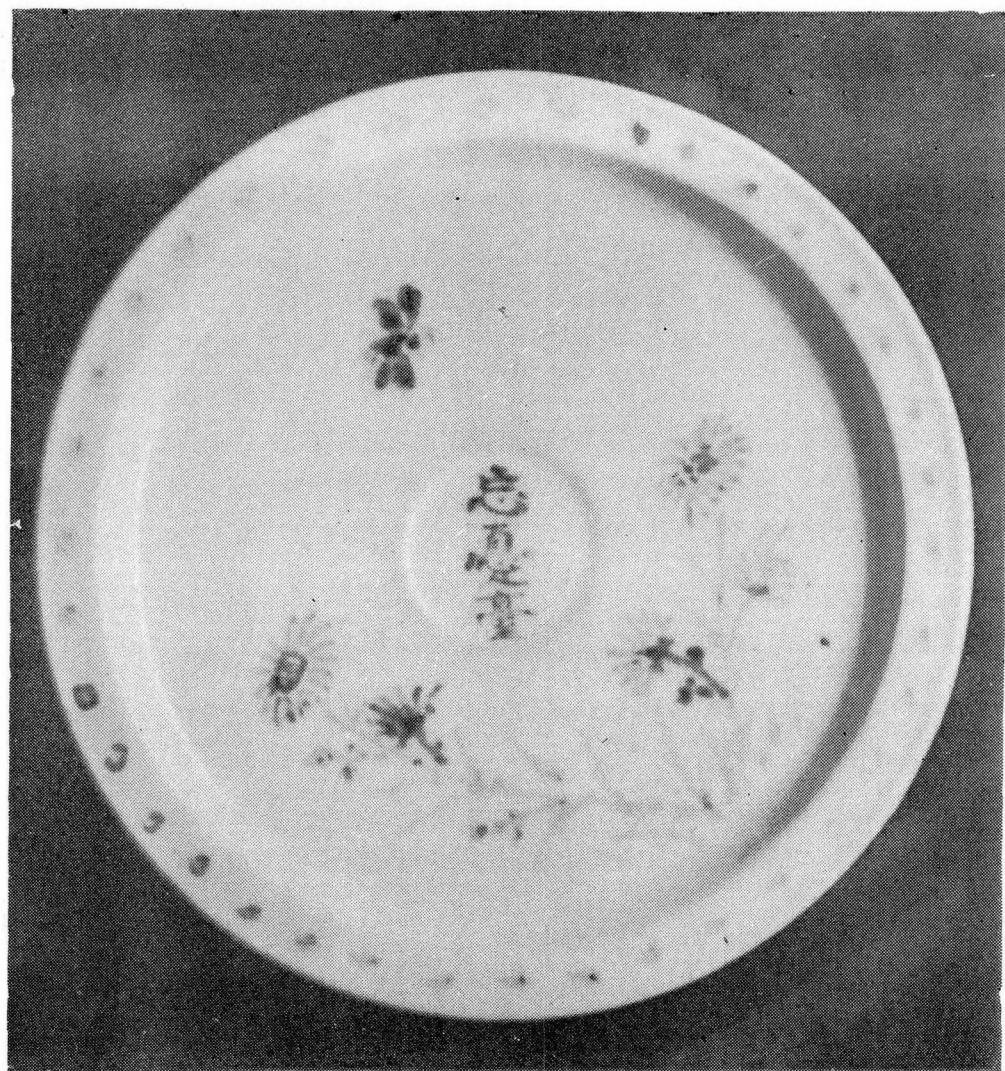
⑯ 만일 이것이 梵莢 또는 연봉을 나타낸 花莖이라면 通例의 四天王에서 벗어 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조사돼야 할 것이다.

⑰ 黃壽永 「新羅皇龍寺刹柱本記」 美術資料 제 一六호(국립중앙박물관 一九七三 年) 참조.

⑱ 黃壽永 「多寶塔과 新羅八角浮圖」 考古美術 제 一一三、一一四 합집호(一九七 四년 一一월) P、二四 참조.

⑲ 現存하는 六角塔으로서는 金山寺의 多層靑石塔이 유일하게 있으나 이는 고려 초기에 발생한 工藝的 小塔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感恩寺西塔、松林寺塔、佛國寺三層石塔、王宮里五層石塔、九皇里三層石塔 등에서 발견된 舍利具는 모두 方形 또는 方壇임을 볼 수 있다.

(東國大學校博物館 研究員)



青華白磁草花文蓋臺(忘憂臺銘)